

## 한국 조류학의 초석, 원병호

구 태 회 | 경희대 환경응용화학부 교수

선생은 1929년 경기도 개성 출생으로 교육자인 아버지(원홍구 박사, 1970년 작고)의 짝은 전근으로 인하여 평남 안주, 함남 함흥 등지에서 유소년 시절을 보냈다. 1947년 김일성대학 농학부에 입학하였으나 학부의 분리 이전으로 농학부가 원산농업대학으로 되어 원산농업대학 수의축산학부 축산학과를 졸업하였다.

1950년 한국 전쟁 직후인 12월에 남하하여 다시 경희대학교 생물학과를 졸업하고, 1961년 일본 북해도대학에서 농업 박사 학위를 취득한 후, 1962년 미국 예일 대학교 특별 연구원으로 1년간 연구하였다. 1961년 경희대학교 교수로 취임하여 문리과대학장과 교육대학원장 및 자연사박물관장을 역임하였다. 1994년 퇴임 후 현재는 경희대학교 명예 교수 겸 초청 교수로 후학을 위해 헌신하고 있으며, 외국에서 특별 초청 강의를 제의 받아 매년 2~3회 정도 해외 여행을 하기도 한다.

한편, 선생의 활동상은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이다. 간략하게 소개하면, 국내에서는 산림청 조수보호위원회 위원, 문화공보부 문화재 위원, 한국자연보존협회 회장 및 한국조류학 회장 등을 지내면서 많은 업적을 남기셨다. 국제적으로는 1965년 제 11차 태평양과학회의 자연보존분과 상임위원으로 피선되었고, 1966년 국제자연보존연맹 생존자보전위원회 위원,

1980년 국제조류학회 종신 이사, 1989년 국제조류보호회의 아시아 회장 등 국제 학회 혹은 국제 위원회에 이사로 피선되어 지금도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선생은 조류 학자로서 고희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학문적 열정만은 남다르다. 현재도 우리나라와 러시아의 번식지를 오가는 철새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러시아의 연해주에 있는 Sikhote-Alin 생물권 보전 지구를 비롯하여 여러 지역을 러시아의 학자들과 공동으로 매년 조사하고 있다. 지금까지 국내의 잡지에 우수한 논문 170여 편을 발표하였고, 20여 편의 단행본을 출판하는 등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 크고 커다란 발자취

선생의 어린 시절은 선친을 따라 다니면서 곤충 채집에 열중하여 우리나라의 나비 이름을 거의 통달하고, 소년 시절에는 공기충과 새그물로 새를 직접 잡아 확인하는 등 남다른 취미와 관심을 가지고 열심이었다. 특히 조류 표본 4천 점 정도(5백 점은 중형, 대형 조류의 본 박제였고, 나머지 3천 5백 점은 가박제)를 제작하신 아버지로부터의 많은 사랑을 받으면서 자연스럽게 부전 지승(父傳子承)이 이루어졌으며, 조류 원색 도감을 항상 몸에 지니고 다닐 정도로 가까이 하여 새의 이름도 150종 정도를 알고 있었다.

이처럼 선생은 선친과 함께 생활하면서 생물에 관하여 취미를 가지고 누구 못지 않게 많은 것을 익혔다. 그 후 대학 진학 때, 선친은 의학부로 갈 것을 권유하였으나, 본인의 뜻에 의하여 수의축산학부를 택한 것이 오늘날 세계적인 조류 학자가 된 것이다.

## 굳은 의지와 신념

선생의 연구 활동의 동기는 한국 전쟁이 일어나면서 남하한 후, 1951년 부산 피난 중 미국 플로리다 대학 오스틴 박사의 "한국의 조류"란 연구 보고서를 읽고 난 후부터이며, 그 후 한국의 새와 짐승의 분류, 생태에 대해 연구를 해야 할 것을 결심하는 계기가 되었다.

선생의 실제적인 연구는 1956년 흥릉 중앙 임업 시험장(현 산림청 임업 연구원) 보호과에 취직되어 산림과 관계되는 조수류를 조사 연구하기 시작한 때부터이다. 최초의 출장지로 울릉도를 택하였는데, 그 이유는 울릉도산 흑비둘기의 정체를 보는 것이었고, 일본인 모리 교수가 명명한 울릉도산 긴꼬리집쥐를 검토하기 위해서였다. 여기서 흑비둘기 5마리를 채집하여 위를 분석하여 식성을 조사하였고, 울릉도 긴꼬리집쥐의 경우도 다른 집쥐나 생쥐와 같이 많이 채집하여 비교 검토함으로써 울릉도 집쥐는 보편적인 애급쥐임을 알게 되어, 모리 교수의 잘못된 발표 논문을 정정하여 다시 "울릉도산 포유동물"이라는 제목으로 학회에 첫 논문을 발표하였다. 그 뒤에도 울릉도산 조수류에 관한 연구는 계속되어 1971년 "울릉도의 조류"를 종합 발표하였다. 이 모든 연구는 무에서 유를 창조해야 하는 1950년대 중반 우리나라의 실정에서 이룩한 업적들이다.

당시 선생의 연구 활동은 채집을 통한 박제 표본 제작과 관계 문헌 및 도서 구입을 정리하는 것이 전부였다. 아침마다 새그물을 치거나 공기총과 엽총을 사용

해서 다양한 종류의 새를 채집하여 박제 표본을 만들었고, 조사한 자료는 모두 기록 보관하였다. 이 시기에 선생의 모든 생활은 오직 연구에만 몰두하였다.

그 이후 본격적인 연구 활동은 1961년 학술원 회원이신 미국 콜리지 박사의 도움으로 예일 대학 특별 연구원에서 활동하면서부터이다. 특히 예일 대학 피바디 자연사 박물관 관장이며 국제 조류 학회 의장이신 리플레 교수의 도움으로 미국 내 조류 연구소, 야생 동물 연구소 및 자연사 박물관 등을 방문함으로써 종의 동정에 필요한 표본을 비교, 확인하는 등 분류학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졌다.

1962년 12월 플로리다 대학의 오스틴 박사 집에서 머무르고 있을 때 뜻밖에도 워싱턴으로부터 국무성 관리가 장거리 전화로 학술 연구 용역 관계의 일이라면서 만나기를 제의해 왔다. 내용인즉, 향후 10년간 철새 이동에 관한 미국의 연구 계획에 한국을 포함시킬 것인지 여부를 타진하는 중요한 것이었다. 이에 대해 선생은 공산권에서 남하하는 철새는 거의 한국을 거쳐가므로 매우 뜻이 있음을 역설하여 한국을 포함시켜 줄 것을 중용하였다. 결국 1964년 봄부터 미국 정부의 예산과 장비를 지원 받아 철새의 이동에 관한 연구에 착수할 수 있었다. 약 7년 동안 135종, 약 20여 만 마리의 철새에 알루미늄 가락지를 달아 날려보냈다.

본 연구 사업을 통하여 밝혀진 우리나라의 조류나 조류상도 어느 정도의 윤곽이 드러나게 되었다. 그동안 우리 나라에서 처음으로 기록된 조류는 20종, 새로운 번식 경과를 밝힌 종(처음 우리 나라에서 번식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종)이 20종, 불충분했던 번식 조사나 생활사를 어느 정도 조사한 것이 약 60종, 그 밖에 철새의 이동이나 분류학적 및 생태학적 기초 조사와 연구 등 170여 편이 우수한 국내외 학술지에 발표되었다.

이러한 연구 과정에서 적지 않은 조수류가 수집되

어 입업 시험장에서 약 500점을 채집하였고, 이것이 곧 경희대학교 자연사박물관(1천여 점의 조류 표본)을 설립하게 된 계기가 되었으며, 현재는 조수류를 비롯하여 많은 동식물을 일반에게 공개하고 있다.

또한 우리 나라 천연기념물인 조류와 수류에 관한 학문적 기초를 마련하여 지정 보호토록 하였고, 국립공원을 지정하는데 큰 공헌을 세웠다.

## 자연을 사랑으로

선생은 우리 나라 전국 방방곡곡을 누비며 산림과 관계되는 새와 짐승류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자연 생태계, 특히 사라져 가는 야생 조류에 대해 관심을 갖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보호 대책의 필요성을 역설해 왔다. 선생의 첫 논문도 울릉도산 진귀한 조류 2종(흑비둘기와 습새)의 국가적 보호에 대한 것이었다. 특히 경제 성장을 위해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전국의 산야가 파괴되어 가고 있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더 이상 파괴되기 전에 자연을 보호하여야겠다는 굳은 신념을 갖게 되었다. 그리하여 선생은 생물 학계 선배, 원로 교수들을 만나 자연 보호의 중요성과 자연 보존을 위한 민간 단체의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그 결실로 1963년 12월 한국자연보존연구회(현 한국자연보존협회)가 발족하게 되었다. 그러나 기금이 한푼도 없는 순수 모임이어서 계획만 세웠을 뿐 활동을 펴 나갈 수가 없어, 결국 선생은 과거 군 생활에서 상관으로 모셨던 인연으로 청와대로 박 대통령을 방문하여 부탁하기로 결심하였다. 이에 박정희 대통령은 "선생이 주장하는 자연 보호는 내가 생각하는 국토 사랑과도 일치한다."며 공감을 표시하며 쾌히 2억 원의 기금을 마련해 주었다. 그리하여 1965년 8월 17일 현 사단법인 자연보존협회가 창립되었다.

본 협회는 매년 학술 답사, 연구 사업, 강연회, 복원 사업, 관련 국제 기구의 가입과 국제 관련 회의 참

석 등을 계속 펴고 있으며, 정부의 연구 보조금도 해마다 받아 활발한 연구 활동을 펴고 있다. 지금까지 학술 보고서 16권, 150여 편의 논문, 조사 보고서 37권, 300여 편의 논문이 발표되었고, 처음 29명이던 회원은 현재 1,300여 명으로 늘어났다. 선생은 자연 보호야말로 자손에게 소중한 국토를 물려 주어야 하는 우리의 시대적 사명이라고 여기며, 이 협회를 이끌고 오셨다.

## 부전 자승 - 분단을 뛰어넘은

### 감격의 부정(父情)

선생은 한국의 철새 이동과 분포를 조사하기 위하여 일본 농림성에서 제작한 알루미늄 가락지를 야마시나 연구소로부터 양도받아 1963년부터 등지에 있는 새끼들에게 가락지를 달아 주기 시작하였다. 1963년 6월 1일 가락지를 달아 준 3종 99마리 중에는 여름 철새인 북방새찌르레기가 82마리나 되었다. 북방새찌르레기는 우리 나라를 비롯하여 중국 동북 지방, 몽고 북부 지방, 우수리 지방 등지에서 번식하고 일본을 제외한 동남 아시아로 남하하는 여름 철새이다. 1965년 여름 동경에 있는 국제조류보호회의(현 국제조류보호협회) 아시아 지역 본부로부터 연락이 왔는데 북방새찌르레기에 달아 준 "농림성 JAPAN C7655"라는 가락지를 달아 날려보낸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묻는 내용이었기에 이에 대한 회신을 동경으로 보냈다.

회신을 한지 얼마 후 다시 편지가 왔는데 가락지를 달아 날려보낸 사람의 이름을 한자로 알려 달라는 요청과 함께 북한 과학원 생물학 연구소에서 일하는 어떤 사람이 북방새찌르레기에 표지 가락지를 달아 준 사람을 찾는다는 내용이었다. 편지에 따르면 1965년 초여름 평양 만수대 기슭 숲 속에서 북방새찌르레가 잡혔고 이 새의 발목에 낀 가락지에 "농림성 JAPAN

C7655"라는 글씨가 쓰여 있었다는 것이다. 북방세 찌르레기가 이동시 일본을 거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는 북한 과학원 생물과학연구소에서는 이를 의아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국제조류보호협회 아시아 지역 본부에 문의해 온 것이다. 아시아 지역 본부의 일본 학자들은 3년 전에 서울의 원병오 선생에게 가락지를 양도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해 주었고, 또한 원병오란 이름을 한자로 알려 주었다. 당시 선생은 북한에서 누군가가 자신을 찾았다면 15년 전 전쟁 중에 헤어진 아버지 밖에 없다고 생각하였다. 북녘 하늘을 바라보고 아버지(당시 북한 과학원 생물연구소 소장)가 살아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며, 아버지는 새를 날려보낸 사람이 남한의 원병오로 알려지자, 15년 전 헤어진 아들이 아닐까 해서 조회했던 것이다. 남북의 부자(父子) 조류 학자가 헤어진 지 15년만에 새를 통해 서로의 생사를 확인했다는 사실은 얼마 후 소련의 프라우다지, 북한의 노동신문 등에 크게 보도되었고, 미국과 일본의 도쿄 신문에도 보도되어 많은 감동을 주기도 하였다.

## 세계에 우뚝 선 성과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우리 나라에서는 불모지와 마찬가지로 시대에, 연구 환경이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홀로 조류의 학문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1960년에 첫 해외 여행을 시작한 이래 40여 년간 30여 차례 한국 대표로 해외 여행을 하였으나, 어느 여행도 새와 관련되지 않은 것이 없었으니 새가 선생을 따라 다닌 것인지 선생이 새를 따라 다닌 것인지 모를 정도이다. 새와 관련된 국제 회의에는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국제적으로도 눈부신 활약을 하고 있다.

1960년에는 우리 나라를 국제조류보호회의에 가입시켰고, 1966년 스위스에서 국제자연보호연맹 총회에서는 우리 나라 자연보존협회가 단체 회원으

로 가입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뿐만 아니라, 국제조류 학회가 열릴 때마다 참석하여 논문을 발표함으로써 한국 조류학의 위상을 세계적으로 알리는데 큰 공헌을 하였다. 지금도 선생이 발표한 논문들은 조류를 연구하는 학자들에게 좋은 지침서가 되고 있다.

## 정의로운 사명감과 인간성

선생이 맨손으로 남하한 뒤 특별히 학문에 정진할 수 있었던 배경은 5년간의 보람 찬 기간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군 생활이었다. 그 곳에서 정의감과 책임감을 키웠으며, 무슨 일이든지 박력 있게 밀고 나갈 수 있게 해 준 정신적 바탕을 마련했다. 군 생활 중, 1953년 3군단 포병 사령부에 배속되어 당시 사령관인 박정희 대령을 만나 전속 부관으로 발탁되고, 그 후 대통령이 된 뒤에도 선생의 연구 활동을 이해하고 적극 지원을 해 준 것이 큰 힘이 되었다.


교육자로서 조류 학자를 지망하는 제자에게 진정한 과학자에 대해서 당부하는 말은 한 마디로 양심적인 인간이 되라는 것이다. 우선 역사와 사회 의식을 갖고 내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역사의 흐름 속에서 어떤 의지를 갖는 과정이며, 그 역사의 진보를 가로막고 있는 불의의 실체가 무엇인가를 알아내는 일이 학문을 하는 자세라고 항상 가르치셨다. 이 땅을 함께 사는 사람으로서 기성 세대가 앞으로 조국을 짊어지고 가야 할 세대에게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는 삶이 되도록 노력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인간답게 살려는 자세가 아닌가라고 강조하셨다.

조류학은 생명체를 연구하는 학문으로서 기본적인 소양을 갖추어야 하며, 한 사람의 과학자가 되기 위해서는 자신이 연구해 나가야 할 분야의 기본이 되는 것들을 우선 완벽하게 다져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그 첫째가 외국어인데 최소한 두 가지 이상의 외국어에 능통해야 외국의 전문 서적을 탐독할 수 있고, 둘째

는 수리적인 설계나 결과를 분석할 수 있는 수학의 기초 위에 물리, 화학, 생물 등의 지식을 쌓으며, 셋째는 전공하려는 분야에 대한 취향과 자질이 필요하다고 역설하신다.

선생께서는 후학 양성에 주력하였으며, 정의감이 강한 성격으로 평소에 가까이 지내던 동료, 후배들의 말에 의하면 학문에 대한 열정이 남다르며, 성격에 비하여 매우 섬세하고 강한 추진력은 자타가 공인하는 바이다. 원병오 선생께서 조류 연구를 시작한 이래 우리나라의 조류에 대한 연구는 저변으로 확대되었으며, 자연 보호에 대한 국민적 인식이 고조되어 국립 공원과 야생 동물의 보호, 환경 문제 등에 관심을 갖게 한 점은 높게 평가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나이가 든 자신을 조국이 필요로 하는 한 새가 있는 곳이라면 세계 어디라도 날아 가는 선생의 학문적 태도에 많은 사람들이 감명을 받았고, 이를 귀감 삼아

훌륭한 학문적 풍토를 조성하는데 큰 기여를 하였다.

원병오 선생하면 누구나 새 박사라는 것과 새의 가락지를 통해 부자가 생사를 확인하였다는 것이 머릿속에 떠오른다. 선생은 조류학의 불모지와 다름없는 우리 나라 조류학의 기반을 구축한 태두이다. 

---

#### 구태희

경희대학교 생물학과를 졸업하고 본 대학원에서 이학사, 경남대학교 대학원에서 이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1983년부터 1993년 일본 구주 대학 방문 연구원으로 활동하였으며, 1995년 문화공보부 문화재전문위원, 1998년 임업 연구원 조수보호위원회 위원을 지냈다. 현재 한국조류학회 부회장, 한국자연보전협회 이사, 한국조수보호협회 부회장을 맡고 있으며, 경희대학교 환경응용화학부 교수로 재직중이다.